

2019 제1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2019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① 회 의 개 요

1. 일 시 : 2019. 3. 25(월), 10:30~13:30

2.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참 석 : 총 13명(이사 11, 감사 2)

- 불 참(4명) : 이사장, 심미선 이사, 주형로 이사, 송광석 이사

4. 부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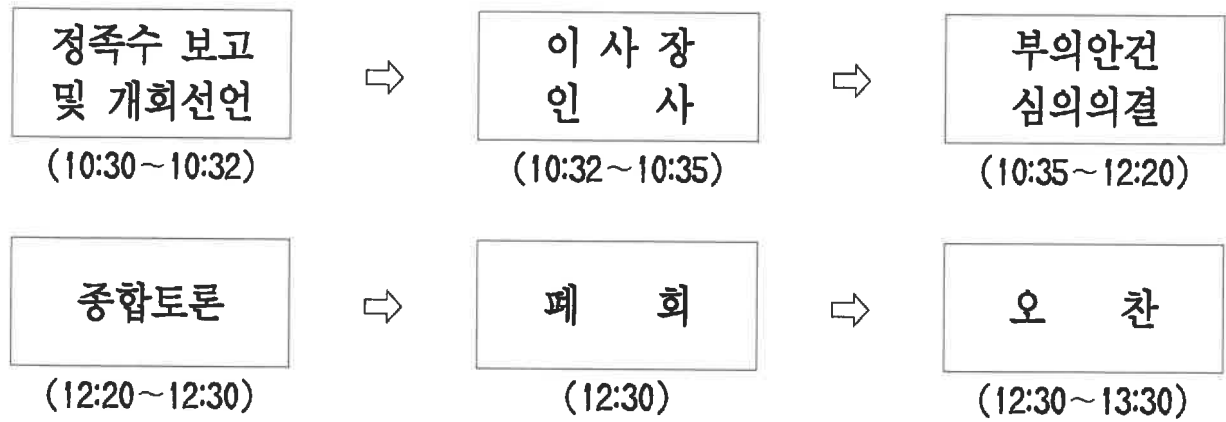
□ 보고안건

- 제1항 2018년도 사업실적
- 제2항 2018년도 감사결과

□ 의결안건

- 제3항 2018년도 결산(안)
- 제4항 기금사용계획(안)
- 제5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 제6항 정관 개정(안)
- 제7항 직제규정 개정(안)
- 제8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9항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 제10항 임원해임 및 선임(안)

5. 진행흐름



② 회 의 결 과

□ 간사 안내

-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이신 “김용웅” 이사께서 이사장을 대신해서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 “김용웅”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시어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웅 이사 이사장 석으로 이동]

□ 개 회(간사)

[성원보고]

□ 개회선언(이사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인사

〈의 장〉

- 서울과 130킬로 떨어져 있는데, 계절은 며칠 빠른 것 같습니다.
 - 꽃이 훨씬 더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마음에 꽃이 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충남연구원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충남연구원, 충남도정의 활발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충남연구원의 노력이 깃들여 있으리라 생각되고, 앞으로 이사님들이 충남연구원의 발전에 많은 충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안전 심의의결

〈의 장〉

- 부의안전 심의에 앞서, 본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록 기명 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실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이사〉

- 제가 하겠습니다.

〈의 장〉

- 고맙습니다. 또 한 분 추천해야 합니다.

〈김혜경 이사〉

- 이상선 이사님이 줄 곧 해오시다, 지난 이사회에서부터 기명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의 장〉

- 이영희 이사님과 김혜경 이사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이사님 모두가 동의해 주셨으므로, 이영희 이사님과 김혜경 이사님을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기명이사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두 분 이사님께서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영희 이사, 김혜경 이사〉

- 알겠습니다.

〈의 장〉

- 다음은, 간사께서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먼저, 보고안건으로
 - 제1항 2018년도 사업실적
 - 제2항 2018년도 감사결과 등 2건과
 - 의결안건으로
 - 제3항 2018년도 결산(안)
 - 제4항 기금사용계획(안)
 - 제5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 제6항 정관 개정(안)
 - 제7항 직제규정 개정(안)
 - 제8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9항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 제10항 임원해임 및 선임(안) 등 8건으로
-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의 장〉

-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부의된 안건을 의사안건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한 후에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된 안건 중 유사안전별로 묶어서 일괄상정해서 안전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보고안전으로
 - 제1항 제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 제2항 제2018년도 감사결과 보고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와 감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및 감사 제안설명 - 부의안전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와 감사가 보고한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말씀 바랍니다.

〈김제선 이사〉

- 연구원 측의 도의 감사에 대해서 사정이나 형편이 있으면, 공유 하여 주시겠습니까?

〈원 장〉

- 회계부분에서는 김덕관 회계과장, 조직에 대해서는 김정희 기획경영과장, 나머지 인사, 규정 등은 관련부서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관 과장〉

- 실무를 하면서 변명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기금부분입니다. 기금부분은 전부 등기를 해야 하는데, 1995년도에 연구원 출연하면서 3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연구원 초기 때 30억을 기금등기를 하고, 그 이후로 100억이 되었습니다.
- 그 당시 하지 못한 이유는 기금을 등록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 30억에서 100억 올릴 때 56백만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회계사님한테 자문도 구했는데, 연구원을 청산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청산하지 않는 한 크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 계속 조금씩 기금적립이 되는데, 기금이 조금씩 적립될 때 마다 신고를 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 결과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었을 때 하려고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 기금증액이 2014년 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그 다음 해부터 기금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넣었는데, 이자율이 너무 하락해서, 사장되는 돈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 부터는 이월하여 사업비로 썼습니다.
- 2014년 이후에는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사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에 대한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 세입예산 편성의 수탁사업에서 수익구조 출연 보조금을 나머지 수탁수입으로 전체 예산에서 26%정도 차지합니다만, 매년 부서에서 얼마정도 할 것이냐!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만,

- 3년 전부터 입찰경쟁으로 되어, 연구원이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많아서 목표보다 줄었습니다. 만약에 수입 예상금액을 맞춘다면, 목표한 금액이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왜냐하면 실적과 목표를 항상 맞추는 형식이 되어서, 어떤 때는 실적이 낮아 마이너스였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실적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 같은 경우 수탁이 증가 했습니다.

○ 목표와 대비 실적이라 봐 주셨으면 합니다.

○ 예산전용 회계부분은 성과급, 급여부분입니다.

○ 정확하게 법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성과급 역시 급여이어서 같은 해당 편성 목은 전용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전에는 인건비 하나의 목이었습니다.
- 인건비에서 급여, 성과급으로 나누다보니까 세세목이 목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별문제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적사항이 되어 우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장〉

- 조직 운영관련해서 특히 연구자문위원회, 비상임연구위원회, 수당, 승급 기준의 비용과 관련 된 문제에 대해서 이사님들께 김정희 과장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김정희 과장〉

- 완료된 건에서는, 도와 충분히 여러 가지사항을 논의해서 규정개정이 있었습니다.
-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상연구원 수당지급개선사항에 대해서 정성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 비상임 연구원의 수당이 100만원이 넘어 갈 때는 원장님, 연구실장 의결을 첨부해서 이백만원, 삼백만원 까지 가능합니다만,
 - 도에서는 “너무 임의적이지 않냐!”라고 의견을 내서, 정량적인 요소를 가미하라고 했습니다. 정량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 연구원에서 고민을 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연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구자분들과 많은 논의를 한 후에 비상임연구수당 지급규정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비위 발생 시 승진자 가산요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요즘 사회 이슈화 되는 것 들이 성희롱, 성폭력 부정청탁방지법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등 기존 규정에 있는 정직과 감봉을 적용 했을 때 6개월을 가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인사규정에 반영해야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직제규정은 이사님들께 미리 말씀 드렸고,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연구원이 인권·감사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직제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항 등을 감안했을 때 원장님의 철학이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센터를 두어서 우리연구원이 자정능력이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 하자고 해서 인권감사 센터를 상정 했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해서 연구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것이냐! 아니면 비정규직 중에 퀄리티가 높은 분을 정규직전환 시험을 통해서 승진개념으로 할 것이냐!
-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 중심으로 하면 무기계약 중심으로 가서 정년을 보장하는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 승진개념을 도입하면 우리연구원은 청년선호 직장이라서, 외부와의 공채시험을 제대로 봐야합니다.
- 실례를 들면,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무기 계약직 전환중심으로 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승진개념을 도입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면접 시험뿐만 아니라, 필기시험도 봤습니다.
- 그렇게 되면 기존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탈락이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라, 비정규직 **80%**이상 분들이 전환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연구원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및 티에프팀도 구성되어있습니다.

○ 올해 **6월** 이내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추후 예산이 문제인데, 도와 협의를 통해서 출연금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소요예산은 산정해 봐야 하는데, 도와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부설센터 설립인가운영 기준입니다.

- 우리연구원이 작년 이사회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사업지원단, 도시재생센터를 포함해서 **10개**의 센터입니다.
-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포인트입니다.
-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 **2016년** 안희정 지사가 있을 때 일부 센터는 안으로 흡수하고, 일부센터는 독립센터로 가겠다고 했는데, 센터마다 특색이 습니다.

- **3년** 정도 지나서 각 센터에 처한 책무와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 이 상태에서 “각 센터 별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이 오지 않겠냐!” 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와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쉽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올 해에는 정책지원사업단장님이 계시지만, 직제규정 특별회계를 보면

정책지원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장 밑에 3명의 직원을 두는 것을 예산상에 계상해 뒀습니다.

- 그분들을 뽑으면 정책지원사업단의 역할과 기능들이 12월정도 가면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장〉

- 마지막으로, 연구과제분야에서 기본과제 연구성과 관리가 소홀한 점, 전력과제 중 내부제안과제 정책 활용도가 미흡한 점, 현안·수탁과제 만족도 조사가 개선이 필요한 점, 연구 성과물의 권장표절설정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 하반기 감사에서는 위탁연구사업적용법이 불명확해서, 문제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왜? 지적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 조치해 나갈 것 인지!”를 담당자가 간략하게 보고 드릴 것입니다.

〈김정희 과장〉

- 우리연구원은 과제의 유형이 기본과제, 현안과제, 전략과제,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 기본과제는 1인 1과제를 학술등제지에 게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본과제를 하겠다고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학술등제지에 등제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 평가에 5점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에서 빼고, 가점을 주는 제도로 하자!
 - 다른 연구과제도 많은데 기본과제를 통해서 연구자 스스로가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역량 강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기본과제를 19년도에는 평가요소에서 가점을 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 전략과제를 자체과제라고 하는데 앞으로 충남을 이끌어갈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어떤 것이냐!

- 연구원 내부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도와 소통 관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소통관계를 통해서 도가 바라고 싶은 정책과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덜 받아 들였다고 생각됩니다.

- 올해부터는 기획실장과 기획조정과장이 정책협의회를 매달 하면서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상태이고,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 현안 및 수탁과제 만족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과제가 많이 늘어나는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과제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 평가 자료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현안 및 수탁과제 만족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연구 성과물의 권장 표절설정운영입니다.

- 우리연구원은 모든 과제에 표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 표절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입률 자체의 결과물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20%이하로 하는 것으로 설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카피시스템인데, 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도의 지적사항이고, 우리연구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 위탁연구사업 적용범위 개선입니다. 위탁연구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탁연구 사업이냐!
- 위탁연구 사업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는데 있어, 어떤 부족한 챕터의 부분을 보완을 해 주는 것입니다.
 - 리서치 설문 조사 용역을 주는데 위탁연구용역이라 할 수 있느냐!
- 규정에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으니 “심의위원화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충분히 공감하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 장〉

- 감사지적문제는 취임한 이후 업무과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취임하기 전 상반기 12건, 하반기 5건 지적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 당시는 부설별로 칸막이가 있었고, 협업과 소통이 안 되어 상당히 과제를 수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조직 개편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 또한 수요자 입장에 놓고 봤을 때 협업이라는 현장모델이 도외시 되었습니다.
 - 수요자인 시, 군, 정책현장의 미흡한 연구를 어떻게 끌어 들여서 연구를 할 것이냐!

○ 이 문제는 수탁과제가 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 실질적으로 전략과제 기본과제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약했던 이유는 수탁과제가 단기적 현안과제에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런 문제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수탁과제의 기준점을 상향조정하여 시, 도, 사업부서에 맞게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 우리연구원 조직이나 과제 선정기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재편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시행을 해서, 올 해 부터는 지난해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들을 쇄신할 것이고, 개혁 할 것이고, 이사님들께 발전된 연구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이사〉

○ 중대비위 발생 시 충남연구원은 공공성의 기반에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비위플러스 연구윤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 제가 미쳐 충남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관리규정에도 기존에 연구윤리에 관한 징계 조항이 있습니까?
- 없다고 하면 신설을 하고, 개정추진을 할 때 더 강화해서 설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존에 조항이 있다고 하면 연구윤리위반사항이 있었습니까?

○ 20쪽 부설센터 설립소멸 관련한 운영기준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연구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치적,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마치 하치장처럼 맡겨 놓았습니다.
- 그렇다면 위임한 기관을 설립시기에 책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이 무책임하게 연구원에 맡겨놓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센터 및 기관 설립 시, 정치적·정책적인 판단 오류가 있을지라도, 연구원에서 기준이 있었으면 적체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 장〉

- 우선 연구윤리규정 인사관리규정 관련해서 연구윤리위반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1건 정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담당했던 김정희과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과장〉

- 우리연구원 규정을 보면, 연구윤리 규칙 사항에 있습니다.
- 두 번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윤리 위원회가 열리면 조사위원회를 거치고, 조사위원회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연구윤리 위반인가!”, “아니냐!”를 판단한 후 인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 연구윤리위반 사례는 타 연구 저작물을 인용 없이 카피하는 사항이 있었고, 논문에 대한 대필내용이 있었습니다.

- 두 사례가 인사위원회까지 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사항이 발생해서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표절시스템도 본격화 됐습니다.
- 그 결과, 모든 과제에 표절시스템에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면 과제 보고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 본인 스스로 잘 하고는 있지만 조직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선 이사〉

- 카피와 대필의 부분에 있어서 징계가 발생했습니까?

〈김정희 과장〉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원 장〉

- 제가 취임하기 이전 사항이라, 두 사례의 대응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그런 문제가 발생할시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 조치내용, 진행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한분은 부장님 이셨는데, 그 징계로 인해 직책을 내려놓고, 감봉을 했던 사항입니다.

〈원 장〉

- 부설센터설립소멸이관 프로세스등의 운영기준마련은 우리이사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과 도의회와의 관계성을 위해서 센터를 소멸시키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 차원으로 검토해서 차근차근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취임하고 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센터문제입니다.
-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센터는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당장 개별 특성에 맞게 독립연구소로 독립시켜서 운영되는 것이, 연구원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조례를 규정하는 문제 도와·실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될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 이런 산적해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 정책지원사업단으로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 센터 문제를 연구원 차원에서 지원협력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센터들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정책지원사업단을 올해부터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뿐만 아니라, 도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 이사님이 제안한 문제를 연구원, 도도 인식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하여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사님들께도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 보고안전에, 또 질의 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김제선 이사〉

- 도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기금관리 업무처리 소홀부분에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고 등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까?
- 기본재산과 관계없이 출자·출연 자산에 등기해야하는데 등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김정희 과장〉

○ 여기서 얘기하는 기금은 기본재산 100억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제선 이사〉

- 100억이 넘어서 156억 되는데, 이중에 100억은 기본재산으로 등기하고, 56억은 보통자산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의 요지입니까?

〈김정희 과장〉

- 자본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100억 일반회계 기본자산 2,495,385천원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 등기사항이 아니고, 추후에 안전 중 기금사용계획(안)에 있는 내용입니

다. 특별회계 중 농업6차센터 기금이 있습니다.

- 그 기금은 농업6차센터가 별도 재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기여부는 더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제선 이사〉

- 기본재산 최초 등기한 이후에 100억으로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 된 것입니까?

〈김정희 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이사〉

- 정보교류차원에서 중대비위 발생 시 승진제한 가산 요구관련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그곳에서 행동강령 개정안이 통과됐고, 중앙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국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되어, 참고만 했습니다.
 - 4월 후반부에 실행예정입니다. “금품, 성희롱, 성폭력의 3대 비위만 가산기간을 적용 하겠다.” 했는데 4월말까지 기다리셨다가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같이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빠진 것이 음주, 도촬, 재산공개입니다. 고위공직자 공개 시 비조회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사례가 있었습니다.
- 행동강령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 정보교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학회에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표절애기를 드리는 것은 불필요 하나 우리 연구원의 규정을 만들면서 규칙을 운영하면 20퍼센트 숫자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표절 20이라는 것은 6개 단어 이상이 20퍼센트 정도 중복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표절입니다.
- 숫자가 여러 선생님을 옥죄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과학이고 지역관련 업무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20퍼센트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회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제가 이사로 임기가 다되어 마지막인데, 있었던 내내 제 추억으로는 조직도와 관련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 두 이사님, 원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실, 소, 센터의 매우 같아 보이는 조직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필요에 따라 단발성에 그치는 연구가 많습니다. 우리 조직도는 정폐적인 것 같습니다.
- 새로운 팀으로 유연하게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 장〉

- 이사님이 제안한 문제는 우리 연구원이 수용해야 할 문제입니다.

- 연구직 승진관련규정 문제는 승진결격사유에 대해서 3대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도촬, 재산공개 결격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보완해야 해서, 수용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기준 문제는 20퍼센트 기준을 명확하게 했는데, 연구윤리위반 기준내용을 현실에 맞게, 최근 근거에 맞게끔 다시 보완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직도 고민과 관련해서 계속 원장이 바뀔 때 마다 조직도가 바뀌고 하니까, 규정규칙을 개정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정관이나 이런 문제는 원장님의 필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드립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8년도 사업실절 보고와 제2항 제2018년도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청취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3항 제2018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제2018년도 결산(안)을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제4항 제2019년도 기금사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전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김제선 이사>

- 연구원에서 적립하고 있는 연구원의 출연금, 6차산업센터 전입금, 자체 적립금 전체가 기본재산입니까? 100억원만 기본재산입니까 ?

<김정희 과장>

- 재무제표 사항을 보면, 1,282천만원은 기본재산인데 100억은 일반회계입니다. 282천만원은 특별회계 속에 있는 기금입니다.
- 2,495,385천원은 우리연구원 이익영업으로 남았던 돈을 기본으로 적립되었던 내용으로 기본재산이 아닙니다.

<김제선 이사>

- 기본재산을 사용 할 때는 지도감독원 사용승인신청을 내야하고, 기본재산의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 전체를 기본재산이라 하고, 그중에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있으면 기본재산변경 의결부터 할 사항

이어서,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선 이사〉

- 자체적립 전액을 연구환경혁신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비용추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을 쓰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나름 비용추계를 예상은 했겠지만, 그런 설명 없이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니까,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걱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원 장〉

- 우리연구원 기금사용계획과 관련해서 수입지출 잉여금 문제등 김정희 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것에 따라서 기금사용계획에서 자체적립금을 가지고 그 안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부연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와 협의 했을 경우 4월경 자체적립금을 사용해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156억 정도에서 자체적립금 24억을 사용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비용으로 공간연구환경개선을 투여해도 괜찮다는 도와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제선 이사〉

- 제가 드리는 문제의식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적절한 것 중에 기본재산으로 등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했다는 것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 기본재산 30억이 등기되어있는데 내용적으로 156억원이 모두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기본재산을 헐어서 보통재산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 내용적으로 기본재산 100억입니다. 나머지가 보통재산 별도 관리기금이면 별도관리기금을 설치할 규정과 사용처가 명문화되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계획안 안전에 쓰여 있어서 승인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 장〉

-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담당자인 김덕관 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김덕관 과장〉

- 회계감사보고서 5페이지 자본을 보면, 자본금이 지자체 출연금입니다.
- 1,282천인데 100억은 일반회계 도에서 출연한 것이고, 282천은 테크노파크가 연구원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그것도 도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연구원이 지자체출연금 자본금으로 잡았습니다.
- 자본에는 자본금이 있고 이익 잉여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 이익잉여금 중에 기금으로 넣은 것이 **2,795**백입니다. 우리연구원이 **25**년 동안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입니다.
- 이 중에 **3**억은 특별회계에서 **6**차농업센터가 남아서 또 적립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4**억 **95**백입니다. 기본재산은 규정상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156**억 전체가 기금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맞습니다. 잉여금 조차도 규정상 기금으로 되어있습시다만, 기본재산을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 우리연구원이 이 금액을 상정한 것은 기본금액에 자본금은 건들지 말고, 이익잉여금에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을 청사 개선사업으로 사용하고자 이사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김제선 이사〉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기본재산으로 등기된 내용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 설명대로 하면 충남연구원이 자체 적립한 것이 보통재산으로 이해되는데, 기본재산으로 설명을 하니깐!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문봉국 감사〉

-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익 잉여금 중에 기본재산적립금을 기금적립금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는데, 기금운영과정에 용어를 “기금은 기본재산이

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를 기본재산적립금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기본재산을 이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출연을 해서 한 기본재산이든지, 잉여금으로 발생하여 전입한 기본재산이든,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인데 기본재산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 결국은 기본재산을 일반재산을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이사회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기본재산이라는 것도 맞는 사항이고, 결론적으로 기본재산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돌릴 때 어느 규정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운성 이사〉

○ 김제선이사님과 동일한 의미로 저 또한 이해합니다.

-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등록된 재산입니다. 충남연구원이 등록한 것은 30억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통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 보통재산 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승인을 거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니까, 기본재산은 등기가 되어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재산입니다.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기본재산적립금이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하게 보통재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기까지 된 것인지! 기본재산 인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 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 정관에 보면 제8조 재산운영관리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제선 이사〉

○ 원장님 취임하셔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의욕과 의지는 공감되어 되고 필요한 사항인데, 우선 감사 지적사항에서 기본재산으로 당연 등기되어야 하는데, 등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금번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 일반적 해석으로는 보통재산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예를 들자면 기본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연금이 기본재산으로 등기가 안됐는데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이사회 의결로 구하는 것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절차적으로 매듭을 짓고, 공간개선사업은 실무적으로 진행할 것은 진행

하시어, 도와 협의를 끝낸 후에 기본재산의 내용이 무엇이고, 보통재산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 보통재산 중에 테크노 파크에서 전입된 것은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여, 사용 못하는 기금입니다.

- 그런 것을 정리하신 다음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축한 후에 그때 의결을 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 장〉

○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산 기금을 세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기본재산과 등록재산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보통재산 미등록재산 잉여금을 포함해서, 우리연구원이 개념 및 용어정리와 기금의 기본재산, 보통자산, 미등록자산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 명확하게 한 다음 공간혁신에 활용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차기 이사회에 다시 한번 기금사용계획(안)을 상정한 다음 의결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의 장〉

○ 현재 규정용어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기금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 “규정이 완전히 정비된 후에 하도록 하자!” 얘기를 하자면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봉국 감사〉

- 참고로,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추경예산과 직접적 관계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안된다하면
뒤에 나오는 추경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의 장〉

- 추경예산 할 때 그때 또 논의를 하시죠 !

〈원 장〉

- 조건부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또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서, 우리가 보고 안으로 제출한 자체적립분 사용 안에 대한 24억 95백만
원 이것을 추경예산을 포함한 연구환경개선을 사용하는데 있어, 오늘은
연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조건부로 허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차기 이사회에 안전을 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나중에 보통자산의 등록자산 및 미등록자산에 대해서 집행하겠다는 명
확한 근거 기준을 남겨둬서 차기 이사회에 참조사항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 장〉

- 김제선이사님이 말씀 했듯이 “이것이 규정의 용어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본재산을 쓰겠다.” 하는 것은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그것을 보통재산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나서 이사회를 승인을 받고 사

용하라!

- “고로 이번에 올린 안은 부결이다.” 제가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 원장님 말씀은 “조건부로 가결해 달라!” 다만,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그 보완한 사항을 다음이사회에 보고를 하겠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제안 되었습니다.
- 김제선이사님, 원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두 제안에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영애 이사〉

- 만약에 조건부로 가결을 한다면, 그 조건에 김제선이사님께서 제시한 기본재산의 정리를 한 후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는 처분권의 명기뿐만 아니라 24억 공간혁신의 비용설계, 공사기간, 입찰여부등 명쾌하면 좋겠습니다.
- 지금 올라온 이 기금 계획안은 24억 전체를 쓰는 것인지! 일부를 쓰는 것인지! 박사급 연구원의 독립된 연구공간을 쓸 것 인지! 유연한 협업 공간을 쓸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아서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원장님 말씀대로 공간업무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들 필요성의 여부와! 있다면, 그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하면 되고 비용이 얼마인지가 분명 했으면 합니다.

〈이상선 이사〉

- 이어서, 신임원장님이 혁신 공간 조정의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 재정적으로 정리 이후에 차기 이사회까지 가면 지체 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 후임 이사회가 구성되면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김제선 이사님의 제안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혜경 이사〉

- 김덕관과장님이 기본재산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 설립할 때 출연금, 그것이 기본재산이라고 인식 하는 것 같고 김정희과장님은 전체 156억이 출연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 기본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문봉국 감사〉

- 기본재산이 156억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를 한 것은 30억도 맞습니다.
 - 156억 전부 등기를 했으면 바람직 한데, 등기를 안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향후에 얼마를 등록 할 것이냐!”가 정해져 있는데 연구원에서 말하는 129억은 지자체라든지, 특별회계의 출연에서 생긴 것입니다.
 - 오늘 처리할 26억은 그 동안 발생한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 입

니다. 기본재산은 다 맞습니다. 등록하는 부분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인데 기본재산을 처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으니까, 용어가 정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26억을 처분하겠다.”라는 것을 이사회에 상정 한 것인데, 용어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등기를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이고, 기본재산 처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면 처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사회 권한인 것 같습니다.

〈의 장〉

- 이사회에서 “이번 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한 김제선 이사님 그것을 뒷받침한 이상선 이사님, 이영애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용 이사〉

- 감사님 의견을 들으면, 26억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봉국 감사〉

- 26억뿐 아니라, 126억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이상선 이사님 말씀대로,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투명하기 때문

에 결정을 못한다.

- 그것은 맞는 말인데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안 한다.” 그것은 아니 라는 것이죠!
- 그것을 아시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 장〉

- 이것을 투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제선 이사〉

- 기본재산의 등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설립유지의 기본자산으로서 처분과 사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 도에서 사전승인도 받아야합니다.
-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에서 매우 엄격해야합니다.
 - 등기된 것만 기본재산으로 보고 나머지를 “기본재산으로 보냐!, 안보냐!”는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 청사환경개선문제는 이번이사회에서 의결을 못 받더라도, 조금 더 조사하시고 계획을 분명하게 해서 4월 혹은 5월의 임시이사회에서 추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런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 추진사항을 명료화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 장〉

- 이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이사님 계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연구원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사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 5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이상선 이사〉

- 기금사용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5번 안건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일반회

계를 자동으로 부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회계는 수용합니다.

〈간 사〉

- 기금 사용 건에 대해서 부결해도, 나머지 전략과제 기타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셔야지, 도정 아젠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선 이사〉

- 기금 사용 관련한 일반회계만입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금 사용 건을 제외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 6항 정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관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 7항 직제규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이상선 이사〉

- 4조 7의 인권감사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정한 규모의 인권경영 위원회라는 비상설 설치를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임입니다.
- 인권감사센터를 “상설적 센터로 설립하겠다.”는 취지인데 충남연구원의 규모 및 다양한 센터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인지 고민이 됩니다.

〈원 장〉

- 고민은 수없이 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경영 위원회와 관련된 차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50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인권문제를 기존의 틀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조직체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 조직상의 문제인데 인권경영감사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산하에 각 실을 두는 것입니다.

- 인권센터를 감사센터로 두는 것은 비상임적인, 조직적 체계 밖에 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하지만, 인권감사센터를 “안으로 두어서, 감사경영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인권을 개선하자!” 는 취지입니다.
 -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노무관리권, 노동권의 개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는 입장입니다.
 - 그래서 “인권감사센터를 신설하겠다.”는 차원에서 충남도 산하기관, 충남도 기관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인권의 개념을 조직 안에 넣어서 작동시켜 보자는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직제에 인권경영감사센터를 설치하는 배경입니다.

〈의 장〉

- 무엇을 하는데, 상설기구를 두어서 그렇게 합니까?

〈원 장〉

- 당장 문제가 되는 미투 사건관련,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보호권이 있습니다.

〈의 장〉

- 상설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습니까?

〈간 사〉

- 예방교육을 상시에 해야 합니다.

〈의 장〉

- 비상설기구로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굉장히 큰 기관도 감사하면 일없는 직책으로도 언급되는데 규모가 작은 기관에 그것을 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 장〉

-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감찰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 인권경영감사센터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단순히 성차별뿐만 아니라, 노사의 직무상의 문제, 도와 의회의 관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권문제등이 있습니다,
 - 단순히 인권문제가 어떤 사고, 사건이 터져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누적 되었던 폐습이 있습니다.
 - 인권차원에서 지속되었던 폐습적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상시적 조직차원에서 인권경영 감사의 기능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 그런 차원에서 인권감사센터를 설립한 배경입니다.

〈이상선 이사〉

- 수천명 규모에도 비상임 기구를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 가까운 대전인권사무소도 있고, 노동인권센터도 개설되어있습니다.

- 독자적인 상설센터로서 150명 규모의 충남연구원에 원장님의 취지는 공감은 합시다만, 얼마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의심이 듭니다.

〈의 장〉

- 인권감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상설 기구냐! 비상설 기구냐!” 문제입니다.
 - 상설기구로 했을 때 “업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할 것 이 무엇이냐!”
저 또한 의문입니다.

〈원 장〉

- 우리 연구원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성차별적 문제, 상하관계의 문제, 노사관계의 노동문제,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9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9개 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도입입니다.
 - 도하고 일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상시적으로 작동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연구원이 검토하고 결과를 냈습니다.

〈의 장〉

-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애 이사〉

- 인권문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공감하고,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동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인권과 감사업무는 사실상 성격이 다릅니다.

- 인권은 예방적이고, 사전적이고, 프로액티브 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이라는 말도 쓴 것 같습니다.
- 감사는 사고적 입니다. 두 업무가 한곳의 센터에 합쳐져 있을 때 만약에 제대로 잘 이행되면 엄청나게 힘이 강한 센터가 될 것입니다.
- 이사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업무가 없다고 하면 업무성과에서 문제가 됩니다.
 - 만약에 필요해서 해보겠다면 상설기관이 아닌 비상설로 시행해 보시다가 상설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 이사〉

-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세부설명과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 저는 환영을 합니다. 공동체 세움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관련해서 연구원 조직과 관련된 연구기능까지 한다면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감사 센터장을 전문가로 모셔서,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세부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역할이 불분명할 때 기획경영실의 인사복지과하고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 할 방안과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면 저희가 이안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것은 없습니다.
- 위상을 고래해서 인권감사센터를 독립적으로 하신 것은 이 기능을 강화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우선 실·과에 넣어서 해보았으면 합니다.

-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상시적인 예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 했으면 합니다.

〈원 장〉

- 인권감사센터를 별도로 한 것은 기획경실안의 과로 둘 수 없는 이유는 그 과안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의 사건이 있을 때 해결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실질적 해결이나 대책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가 회복되고 찾게 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인권과 감사 및 연구 과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 검토하는 안은 변호사 자격자 중에 박사학위를 가진 분을 센터장으로 모셔서 인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처리하고, 인권 노동 관련된 연구과제도 함께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 저희들이 매년 행정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대내·외 준비예방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독립 되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 조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 이사님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제선 이사〉

- 인권감사센터가 내부고충을 처리하고 감사활동뿐만 아니라, 충남도 및 충남산하기관 유관단체들의 인권 관련된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운영할 수 있는 독립 센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 장〉

- 예,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의 장〉

- “인권감사센터 설립의 기본취지는 이해한다.” 상설조직으로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원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가결을 희망하고 계시고, 이상선 이사님 의견은 불분명해서 가결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애 이사〉

- 현재 가결 또는 의결조정안건인 인권경영감사센터의 업무가 충남연구원내의 인권보호, 내부감사의 사전 사후적 처리뿐만 아니라, 충남전체의 인권감사 인권관련 연구수탁까지의 확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 장〉

- 예, 그렇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혜경 이사〉

- 이 사항을 부결하는 것보다, 수정 보완하자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장〉

- 수정, 보완하는 쪽이 표현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연구원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직제규정개정(안)은 보류하고,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의결이 모아졌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 8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이원용 이사〉

- 관리직을 직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 사〉

- 연구직까지 포함해서 승진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직이라고 명칭을 두고, 관리직에 관한 사항만 승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연구직까지 포함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영애 이사〉

- 책임연구원에서 5년 이상, 연구위원에서 5년 이상, 선임연구위원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 사〉

- 수석연구위원이 됩니다.

〈이영애 이사〉

○ 수석이 되려면 15년 걸립니까?

〈간 사〉

○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이사〉

○ 책임연구원은 석사급입니까?

〈간 사〉

○ 책임연구원급은 박사급입니다.

○ 현재 규정상 책임연구원은 석사급이 아니라, 박사급만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8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 9항 재무회계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간 사〉

- 참고 사항으로, 이전 직제규정에서 부결되어서, 이것도 자동으로 부결되는 사항입니다.

〈의 장〉

-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무회계규정 개정(안)은 선행 안건이 부결 되었으므로,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 10항 임원해임 및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부의안건참조]

- 참고로, 그 동안 관례는 현 이사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안건 심의가 곤란하고 또한, 이사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인 도지가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우선, 해임(안)만 의결해 주시고, 선임(안)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이상선 이사〉

- 해임이라는 용어는 행정적 법적용어로 이해됩니다.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용어로 활용되는데, 우리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 되어서 그만 두는 것입니다.
- 해임이 아니라, 임기만료로 순화된 표현으로 쓰면 되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서 순화된 표현으로 용어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김제선 이사〉

- 임원해임 및 선임(안)은 충남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한 안전에 동의합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0항 임원해임 및 선임(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閉 會

〈의 장〉

- 이상으로 부의안건 심의를 마치고, 오늘로서 이사의 업무를 종료하고, 그 동안! 이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여 의욕적으로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사님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연구원의 많은 발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설명이 부족해서 연구원의 중요한 안건을 가결 못 시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 이사회를 할 때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전에 이사님들은 대부분 가결을 시켜 주셨는데, 요즘 이사님들은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더 있는데 기본과제, 전략과제를 명확히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하나는 완결성, 또 한 가지는 상호배척이 되어야합니다.
- 기본과제, 전략과제, 현안과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애매모호 합니다.
 - 우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과제 목적은 연구원의 능력함양과 함께 연구원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방법론 사회현상의 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연구입니다. 학술연구 비슷한 것이고, 당장 활용은 안 되지만 나중에 활용되는 것이 기본연구입니다.

- 전략과제는 구체적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이슈에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 현안연구는 오랫동안의 연구를 간략하게 정보·분석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이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위한 연구가 현안과제입니다.
- 앞으로 연구의 구분정도는 분명히 하시고, “연구를 왜? 하는지!” 연구원은 뚜렷하게 했으면 합니다.
- 연구원의 많은 발전을 바라며, 원장님이 새로 오신 후에 또 다른 도약의 길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원장님이 상당한 평가를 받고 계시고,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고 우리연구원 직원여러분들에게 또 행운이, 건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것으로 충남연구원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19 제1차 정기이사회(2019. 3. 25)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 함.

의 장 김 용 웅 (인)

이 사 김 혜 경 

이 사 이 영 희 (인)

감 사 문 봉 국 (인) 

감 사 이 필 영 (인) 